

실직 여성노동자 갈 곳이 없다

인력난 불구 업체마다 초보자·임시직 선호

제조업체의 부당 휴·폐업에 따른 여성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와 감원 등이 잇따라 불안정한 여성고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88년부터 91년 8월까지 4천8백36개 사업장이 휴·폐업했고, 이로 인한 실직자수는 16만3천91명에 이른 다.

휴·폐업은 산업구조 조정에서 경쟁력 약화 산업으로 분류되는 신발·완구·섬유·일부 가전제품 등 여성중심 업종의 중

소규모업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런 추세와 관련,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회 공동주최로 12일 열린 '악화되는 여성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토론회에서는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인력난 문제 △정부가 95년 제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고용보험제의 문제점 △시간제노동증가문제 등을 분석해 관심을 모았다.

'감원, 대량해고와 고용보험제'를 발표한 이진경(성균관대

강사·여성학)씨는 "생산직 제조업체마다 인력난이다. 구인난이다 하면서도 여성노동자는 해고의 경험이 없는 20살 미만의 여성만을 위해 외국기업 철수, 휴·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이 취업할 곳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씨는 또 "정부가 예시안의 형태로 지난 8월 발표한 고용보험제도는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고규제 내용을 강화해 부당한 휴·폐업, 인원감축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임시고용 형태를 짚어본 송다영(계명대 강사·여성학)씨는 "생산직 노동의 기계화와 단순화, 사무자동화 등이 여성노동자의 임시고용 증가의 주원인"이라고 풀이했다. 이로 인해 "임시직 여성의 노동조건은 대책없이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한 송씨는 △임시직이 비정규 노동자로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 및 기업내 복리시설의 이용면에서 정규 노동자와 차별당하는 점, 의료보험·퇴직금 혜택이 없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여성계와 노동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여성 노동자 투신자살

91. 12. 7

대봉 권미경씨 열악한 노동조건 비판

"억압없이 인간답게 살고싶었다" 유서

【부산=이수원 취익림 기자】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처지를 비판한 여성노동자가 공장에서 투신자살했다.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공단 신발제조업체(주) 대봉(대표 조우준) 여성노동자 권미경(22)씨가 6일 오후 4시께 공장 옥상에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회사 노동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간의 휴식시간에 2층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권씨가 20m 높이의 공장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려 식당 앞마당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것이다. 권씨의 시신은 이 회사 직원들에 의해 고신의료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권씨는 손목에서 팔꿈치에 이르는 팔 안쪽에 검은 볼펜으로 유서에서 "사랑하는 나의 형님들아, 나를 이 차가운 억압의 땅에 묻지 말고 그대들 가슴에 묻어주소. 그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리.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말라.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고 미경다"라고 적어놓았다.

권씨의 유서는 회사 동료들이 후 6시 퇴근한 뒤 뒤늦게 소식

을 알고 영안실에 달려와 주검에 적힌 것을 확인한 것이다.

권씨는 부산 서구 아미동2가 산19 셋방에서 무직인 어머니와 노동자인 오빠 그리고 여동생 2명 등 4식구와 함께 어렵게 살아왔으며 공단 안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책을 빌려주고 독서토론 등을 주관해온 광장도서관 회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 4일부터 출퇴근 때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30분 일 더하기' 운동과 관련한

정신교육을 시켜왔으며 권씨가 소속된 재봉과에서는 지난 4일과 5일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근시간 뒤에 10~20분 동안 신발 단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등에 대해 정신교육을 받기도 했다고 동료노동자들은 밝혔다.